

最後와 最初의 人間

올라프 · 스테이플돈
(Olaf Stapledon) 作

徐 光 云 訳
〈한국SF作家클럽회장〉

이야기는 인류사상『제17인간』또는『마지막 인간』으로 불리는 50억년 이후의 사람의 입으로 시작된다.

이야기의 발단은 지구의 기독교 역서로 말하는 20세기. 세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라틴인 종끼리 격돌하는 라틴전쟁의 발발로 시작하여 마침내는 유럽전체를 휩쓸고 英佛전쟁으로 발전한다.

20세기의 전쟁은 전승국일지라도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게된다. 유럽은 새로 독일왕자로 맞이하게 되는데 독일역시 러시아와 사투를 벌여 거덜나간다.

이같은 정세속에서 세계의 과학자들이 영국에 모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중국의 어느 젊은 과학자가 제시한 긴급보고를 듣고 크게 놀란다. 중국과학자는 물질을 파괴하는 에너지발사장치를 개발했다는 것.

실험결과 라이플형의 에너지발사장치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러한 무기를 당장에 파괴해버리도록 결의한다.

중국과학자는「새 인류가 이 무기를 평화롭게 사용해질 때까지 나는 위험인물」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해버린다.

그후 새 무기의 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유럽척 미국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죽음의 세계로 바뀐다.

이젠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한다. 和平을 호소하는 움직임에 따라 세계연합

이라는 조직이 생기기에는 하지만 일본에 관한 문제로 두 진영은 완전히 兩極化되고만다.

그러나 解氷은 기묘한데서 시작된다. 東과 西의 해상비행기가 태평양의 외딴섬에 불시착하여 쌍방의 승무원들이 악수를 나누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東西사이의 和平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東과 西의 피가 섞인「인류의 딸」이라고 불리는 혼혈미녀가 통일의 심볼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제 1 세계국가는 암 예방약을 정점으로 하는 不老不死의 문명을 이룩하게 된다. 이 문명세계에서는 인구억제를 위하여 섹스가 禁制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적성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여성과의 性的결합이 허용되면「날개를 가진 사나이」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섹스의 금제가 엄해짐에 따라 성을 오락화하려는 기괴한 性的비밀결사가 만들어져 「제 1 암흑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 암흑기는 생존경쟁이 심한 야생의 땅에서 자란 파고다니아인에 의해서 막이 내려진다.

생존경쟁과 사망률 때문에 섹스의 터부가 깨진 인류는 또다시 고대문명에 접근하게 되고 원시적인 지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한다.

그러나 위험한 이 에너지를 마구 쓴 탓으로 지구는 폭발하고 인류의 대부분은 타죽는다.

이때 공교롭게 살아남은 자는 북극탐험중이었던 남녀 35명뿐이다. 그들은 熱風을 피하여 북극으로 은신하고 제 2 암흑기 속에서 인류의 재생이 촉진된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제 2 인간」은 야만상태에서도 자연의 섭리를 끝잘 이해하는 종교인이었다.

이처럼 검소하게 살아나가는 「제 2 인간」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은 화성인의 내습이었다. 화성인들은 경제적으로는 물과 채소를 얻어내고 종교적으로는 지구의 보석과 다이어먼드를 「해방」시키려고 찾아온 것이다.

이들 異生物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박테리아전쟁으로까지 발전하여 쌍방이 전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세번째 암흑기가 찾아오고 牧歌의 생활과 美를 동경하는 별종의 인류『제3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들은 뛰어난 지성과 12개 있는 손가락으로 이질적인 수학을 창조해낸다. 이 시대에는 사람은 이미 남녀를 구별할 필요조차 없게 됐다. 그들은 지성을 사랑하는 나머지 전인류의 腦를 모은 거대두뇌의「제4인간」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大腦만이 존재하는「제4인간」은 그 허황함을 느끼고 자신을 보완하기 위한「제5인간」을 제작한다.

「제5인간」은 「제2인간」처럼 야생적이고 커다란 육체를 지니고 소화기능과 육체재생능력을 얻은 후 텔레퍼디로 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제4인간」의 두뇌는「제3인간」을 멸망시킨 후 그들 자신도 굶어죽고 만다. 그래서 이번에는「제5인간」만이 새 문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들은 텔레퍼디를 사용하긴 하지만 「제4인간」처럼 집단정신을 갖지 못한채 어디까지나 독립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텔레퍼디의 힘으로 전인원이 연결되어 수천년의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시간을 정복하고 과거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데 시대를 초월한 비극의 존재를 실감하여 우울증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는 전혀 실재하지 않았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만 별로 옮겨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에텔·심〉으로 불리는 길이 3천피트의 궤연형 로키트를 타고 金星에 다다른다.

그러나 금성에는 水棲人이 살고 있어 지구인의 침입에 저항한다. 인간이 대기속에 산소를 섞게 되면 방사능을 식량으로하는 水棲人으로선「酸化」라는 화상을 입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성인들의 저항을 뿌리치고 지구인들은 금성인을 일소해버린다. 그들은 금성에서 지구보다 긴 역사를 이룩하게 되며 이주해온 제1세대는「제6인간」으로 불린다.

그들이 하늘을 나는 인간창조를 생각해낸 후 여러 세기가 지나자 각지에「제7인간」으로 불리는 飛行人이 등장한다. 그들은 피그미와 비슷한 몸체였지만 날기에는 걸맞았다.

그후에 思辯형 보행인종으로 태어난 「제8인간」은 태양이 사멸을 뜻하는 白色倭星으로 바뀌어가는 사실을 관찰한다. 인류는 드디어 마지막 피난처인 海王星으로 이주하여 뒷머리에 한쌍의 눈을 갖고 3백60도의 시각을 갖춘「제17인간」 즉 마지막 인간으로 진화한다.

그들은 텔레퍼디에 의한 정신적 결합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性의 共有化」를 실현한다. 그들은 또한 과거로 여행하는 일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으며 명상적 최종문명을 이룩한다.

그러나 태양계의 종말이 다가오고 그것은 피할 길없는 운명임을 알아차리자 마지막 인류는 슬픔과 혼란의 도가니속에 휩싸인다.

마침내 사멸해가는 인류 속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나 가장 고귀한 魂이 깃든 젊은이는 사람들에게 고한다-우주에 비하면 사람따위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는않다. 그러나 인간은 그 조그마함과 사멸해야하는 운명탓으로 우주보다 한결 아름답다-고.

■ 작가와 작품 ■

H·G·웰즈는 그의『세계사대계』에서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세계는 이렇게 되리라」고 인류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러나 웰즈의 학설이 현실이라는 암초에 걸려 어이없이 철퇴해가는 동안 영국의 사회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올라프·스태플돈(Olaf Stapledon·1886~1950)은 SF사상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 「최후와 최초의 인간」(Last and First Men·1930)을 저술하여 인간의 상상력의 기적을 보여주었다.